

제 101호 문제학생 다루기 1

'문제학생'이란 기초가 약해서 공부를 못 따라간다거나 아예 공부할 마음 자세가 없는 학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호에 말씀드리는 '문제학생'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중에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은 문제학생입니다.

옆에 앉은 학생하고 수시로 잡담하는 학생, 핸드폰을 쓰는 학생,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학생, 수업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학생,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불평하는 학생, 교수님에게 불쾌한 태도로 대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치자니 강의실 분위기가 엉클어질 것은 뻔하고, 하지만 정면대결하자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신이 없고...잘못되는 경우에는 본전도 못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낭패라도 보면...에라, 못 본척하는 게 상책이라! 아닙니다. 문제는 초기에 잡는 것이 상책입니다. 문제학생을 다루는 기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1. 문제학생들을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잠자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깨워서 야단치지 않아야 합니다.

남 앞에서 맞은 야단은 결코 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뜰이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상해 있는데 야단까지 맞으면 약이 올라 독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따로 교수님 연구실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문제학생이 감정적일 때는 정면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이 감정적일 때는 남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이나 자세를 지적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학생의 행동이나 자세를 컨트롤하기 위해 개입을 하는 것인데 개입의 결과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너와 나의 대결"이라는 태도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

"자식, 두고보자."하는 식으로 버르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혼내 줄 양으로 학생을 대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존심 대결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한번만 더 하면 그냥 놔두지 않을 꺼야." "그래, 지금 네 맘대로 해. 나중에 후회할걸." 이런 식의 대답은 문제를 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만 일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정말로 한번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허세가 허풍으로 변하고 맙니다. 교수님의 권위와 신의가 그 날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호에는 문제학생을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0